

# 바이오·AI 등 10대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키운다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발표 5년간 민·관 공동 2조원 투입...기술 완성·사업화 지원 민간투자 촉진 초격차펀드 신설...글로벌 펀드 8조 확대

정부가 초격차 10대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발굴해 육성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5년간 민관 공동으로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프로젝트를 내놨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초격차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할만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신산업 스타

트업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격차 스타트업이 탄생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기술경쟁력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높은 수준으로, 2017년 이후로 전체 창업에서 신산업 분야의 기술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벤처 생태계의 중요한 지표인 유니

콘 기업의 수를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은 23개로 이중 기술기반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기술 선도국들이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10대 초격차 분야로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10대 초격차 분야에서 공개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 뒤 내년 부터 5년간 2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은 주관기관으로 스타트업의 기술완성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술이전, 공동 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 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고 제품과 서비스 사업화도 지원한다.

기본지원 이후 민간 투자시장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거나 글로벌 기업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기업은 후속 지원도 받는다.

중기부는 연간 20곳 안팎을 선정해 글로벌 스케일업(규모 확대) 촉진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2년

동안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하고 외국 자본을 유입할 글로벌 펀드를 현재 약 6조 3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말 8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격차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자금과 보증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것은 스타트업”이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민간·정부 역량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효성, 폴리에스터 섬유 친환경 촉매 개발 ‘세종대왕상’ 수상

### 특허기술상 시상식서 대상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절반 감소

효성은 3일 서울시 강남구 엔터위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 2020년 친환경 폴리에스터 촉매 ‘안티몬-프리’ 개발에 성공한 공로로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속이 아닌 주석(Sn)을 기반으로 한 촉매로 효성은 2017년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3년만인 2020년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안티몬-프리 촉매를 활용하면 전보다 촉매 투입

량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또 폴리에스터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배출량도 기존 촉매 대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제품의 생산 공정 개선과 품질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효성은 내년까지 모든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에 안티몬-프리 촉매를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요 고객사의 친환경 섬유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험생산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중국을 비롯한 유럽, 인도 시장에서 특허 등록도 추진 중이다.

또 세계 시장점유율 45%의 1위 제품인 폴리에스터 타이코드를 비롯해, 필름과 페트병, 차량용 섬유 등 효성의 주요 계열사들에서 생산 중인 폴리에스터 기반 제품에 촉매제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전 세계 고객의 VOC를 경청하고 고객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해 ESG경영과 이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 기술혁신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대, 초기창업지원 ‘투자유치 1R’ 개최



### 25개 회사 참여...멘토링 진행

광주대학교 초기창업패키지사업단은 최근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31개 창업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광주전남 연합 투자유치 1R’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컨설팅 연계와 초기창업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우수 스타트업 10개 회사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상 등을 발표했다.

또 투자자와의 만남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25개 회사가 참여해 일대일 상담과 심층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융합 신기술 한눈에...국제 광융합산업 전시회

### 23~24일 광주 김대중센터 수출상담회·채용박람회도 마련

‘제20회 국제 광융합산업 전시회’가 오는 23일 광주에서 열린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유일 광산업 전문전시회 ‘제20회 국제 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혁신적이고 미래 유망한 광융합 신제품 및 신기술이 대서 진보 여길 예정이다.

수출상담회에서는 14개국 21개소 해외마케팅센터와 기업에서 직접 초청한 해외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실질적인 마케팅 교류 및 수출 상담회를 전시회 기간 중 개최해 해외 판로개척에도 나선다.

전시회 기간 중 입국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참여 기업 간 1대1 대면 상담은 물론 ‘온라인 365 상시 수출상담회’를 운영해 지속적인 수출 상담과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광융합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자

리에서 둘러보고 광주지역 산업의 역사와 변화를 돌아보며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특별관도 구성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6G 광통신 기술 동향, 의료헬스케어 기기 개발전략 등 컨퍼런스를 대폭 확대 개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위해 채용박람회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해 개최된 ‘제19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는 115개사, 16개기관, 154개부스 규모로 개최됐으며, 수출계약 256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정철동 진흥회장은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 플랫폼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증 취득·임대료 무상 지원 등

전남도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오는 14일까지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 입주할 콘텐츠 분야 기업 6곳을 모집한다. 입주면적은 7명이 근무 가능한 65.45㎡부터 10명 이상 근무 가능한 266.64㎡까지로, 선정된 기업은 임대료가 무상 지원된다.

모집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콘텐츠산업 업종에 해당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업종을 동시에 충족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전남으로 돼 있거나 입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남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이어야 가능하다.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입주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연장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